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8월 8일 수요일 (음 6월 27일)

제210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미국문화주간... 전주 한지가 만들어지는 과정 살펴보기
설사에게 전주 한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7일 전주 일원에서 2018 전주세계문화주간-미국문화주간 참가 및 미국문화 홍보가 실시된 가운데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운데)와 김승수 전주시장(왼쪽)이 문화해 (관련기사 4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태양광발전시설 악용 부동산투기 차단 전북도, 내달 12일까지 산지전용허가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 전환 의견수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가 강화된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림청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으로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보면 산지 전용허가 대상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조항이 담겼다. 산지 내에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산림 훼손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법적 허점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일시 사용허가로 전환되면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사용기간을 보장받지만 산지의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후 원상 복구해야 한다. 그 동안 감면했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전액 부과한다. 토사 유출과 산지경관 훼손을 줄이기 위해 평균경사도 허가기준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한다.
산지관리법령 개정안은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시행된다.
이번 입법예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내 산지 인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85건(18ha), 2016년 120건(26ha), 2017년 789건(187ha)으로 2015년의 약 9배, 2016년의 약 6.5배가 급증했다.
그 원인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한 도내 임야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산지전용 준공 5년 후 용도변경이 가능하여 자가 상승 요인이 발생

한다는 점도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그동안 산림이 무분별하게 전용되고 있어 토사유출 등 부작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김용만 환경복지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점차적으로 차단되고, 토사유출·산사태 등 산림훼손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2면 -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 뒷선으로
6면 - 당정청,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전북경제 활성화 힘 모아

도-중진공, 업무협약 체결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 운영 재도전기업 지원 강화 등 협력

전북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7일 도청에서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련사진 3면)
이 날 협약식에는 전북도 송하진 지사와 중진공 이상직 이사장이 참석, 양 기관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와 중진공은 ▲전북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운영 ▲혁신성장 시설투자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수출 및 글로벌진출 지원 확대 ▲기업혁신 컨설팅 지원 강화 ▲전기차 자율주행차 관련 협동협업단지 조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확대 ▲위기중소벤처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강화 ▲재도전기업 지원 강화 ▲지역인재 채용지원 확대 및 일자리포털센터 설치 등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도내 잇따른 경제 위기 속에 중진공은 올해 정부 추경에 반영된

김금경영안정자금 등 예산 270억원을 전북 지역에 추가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 한국GM 협력업체 대상으로 김금경영안정자금 금리를 1.05% 인하하고 대출금 만기 연장 등의 김금경방을 취한 바 있다.
중진공 이상직 이사장은 "40년간 최일선에서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속도감 있게 원스톱으로 집행하여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하진 지사는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전 분야에 걸친 사업과 연계하고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할 최초의 혁신적 모범사례로, 우리 도를 표본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위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속성장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글로벌 전주비빔밥축제 홍보단 구성

시·시의회·국제조직위, 서울남산타워 등서 축제 알리

전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적인 및 축제인 전주비빔밥축제 홍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시는 7일 2018 전주비빔밥축제의 국내·외 홍보를 위해 박형배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선거현 전주비빔밥축제조직위원장과 함께 한국관광공사와 서울남산타워를 잇따라 방문, '전주비빔밥축제' 설명회를 가졌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전주비빔밥축제는 오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전주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 일원에서 6개 분야 38개 프로그램과 함께 한국 전통의 맛과 멋, 흥이 어우러진 축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먼저, 시는 한국관광공사의 국제네트워킹을 활용한 비빔밥축제 홍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직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남규 전주시의회 의원은 "전주시는 세계 네 번째, 국내 유일의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서 가장 한국적인 맛의 도시이며 한국적인 정취가 묻어나는 전주한옥마을이 있다"며 "올해 전주비빔밥축제는 국제관광객은 물론 국내관광객에게 멋진 여행, 소중한 추억을 안겨 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홍보단은 이어, 남산 N서울타워에서 전주비빔밥축제 홍보관 설치와 홍보물을 배부하고 이어 남산타워를 관리·운영중인 CJ푸드빌 타워사업팀을 찾아 브리핑과 함께 성공적 축제를 위한 홍보지원을 요청했다. /송호철 기자

2018 치즈 사랑 반하다!
임실 치즈 축제
10.6.(토) ~ 9.(화)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치즈마을

치즈를 테마로 한 국내 유일 체험형 관광지
임실치즈테마파크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50
전화 063-643-2300 www.cheesepark.kr

임실군